<합격수기>

10학번 김○주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격수기를 써봅니다. 간략히 저의 소개를 하자면, 초수에 1차 합격/최종 탈락, 재수에 1차 탈락, 그리고 2018년 삼수만에 최종합격 하였습니다. 노량진은 가지 않았으며, 전공 인강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학교 구룡재에서 후배들과 스터디를 꾸려 공부했습니다. 저는 여러 합격수기를 보고, 가장 저의 스타일에 맞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의 합격수기를 보며 각성하고, 그 분을 따라가고자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으니, 여러분도 자신과 맞는 스타일의 합격수기를 선택해서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1. 공부 과정

먼저,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초수 때 어떻게 1차 합격했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평균 학점이 2.9점일 정도로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1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한 후부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임용을 붙으려면 최소한 학과 1등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년간의 노력으로 학과 1등의 실력을 갖추었지만,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을 하고 "노량진에 있는 애들에게 꿀리지 말자." 라고 다음 목표를 세우며 다짐했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공부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3, 4학년 때는 학과 수업을 듣고, 학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는 복습과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를 해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각적인 복습은 공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다음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질문할 거리가 생깁니다. 2년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 외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갈 때나 이동할 때에는 윤사사(다음 카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였으며,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답변을 달며 공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공에 대해 질문할 선배가 없어서 카페에서 온라인 고수들과 대화하기 위해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공부하다가 졸리거나 집중이 되지 않을 때는 장소(구룡재, 중앙도서관, 1116강의실)와 필기구 등 주변 환경을 계속해서 바꿔가며 공부량을 늘렸습니다. 4학년 때 10개년 기출문제 5회독 정도하고, 강사 모의고사는 거의 풀 시간이 없었지만, 운이 좋게도 합격컷 턱걸이로 1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점수도 높은 편이었지만, 그 시절 임용은 2차에서 100점을 맞아도 최종합격을 못 할 정도로 2차 변별력이 없었습니다.(지금은 2차 변별력 강함.)

재수는 교육학을 11점을 맞는 바람에 1차 탈락하였습니다. 삼수를 시작하기 전에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공부법, 공부 시간 등 다양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어서 스터디를 활용했습니다. 3~6월엔 기본서 스터디, 7, 8월엔 문제풀이 스터디, 9~11월은 모의고사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혼자 공부하며 고착된 오개념과 나르시즘을 타파할 수 있었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결과 최종합격했습니다. 다음은 삼수 때 공부과정을 간략히 나타낸 것입니다.

일정	전공	수교론, 수교재	교육학
3~4월	전년도 문풀, 모의고사 복습	요약노트 만들기	요약노트 만들기
7~8월	문제풀이 스터디(피드백 필수)	요약노트 회독, 신은주 기출문제집 읽기, 모의고사	문장 쓰기 -> 한 단락 쓰기 -> 모의고사 (피드백 필수)
9~11월	모의고사(피드백 필수)		

※기출문제는 틈틈이 회독했음.

2. 과목별 공부 방법

(1) 전공 내용학

• 실해석학(메인: 정동명, 서브: 바틀)

가장 오랜 기간 공부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입니다. 학교 수업을 잘 들으며, 개념 하나 하나에 대해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학부 때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기본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모든 정리의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와 아이디어가 문제 푸는 데에 활용됩니다. 학교 교재인 정동명 책으로 충분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바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사전분석 후 풀이를 설계해야 합니다.

• 위상수학(메인: 학교 교재, 서브: 박대희)

'주어진 위상을 잘 파악하는 능력'만 키우면 됩니다. 학교 수업만 잘 듣는다면, 따로 기본서를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서에서 개념을 확실히 공부했다면, 여러 문제를 통해 다양한 위상을 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대대수학(메인: 프렐라이)

프렐라이는 본문에서 설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문제를 끝까지 풀어야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와 대화하며 깨우쳐가는 즐거움이 있어 프렐라이를 추천합니다. 답안을 작성하는 데 가장 까다로운 과목이므로 기출문제를 풀고, 피드백 받고, 다시 써보는 과정을 반복하면 좋습니다.

• 복소해석학(메인: 허민, 서브: 강승필)

복소해석학은 내용적으로는 허민으로 충분합니다만 약간의 부족한 부분을 강승필에서 보완할 수 있으므로 두 책 모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해석학과 마찬가지로 기본서에 있는 정리 증명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하고, 주어진 조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사전분석 후 풀이를 설계해야 합니다.

• 미분기하학

미분기하학은 기본서 회독보다는 문제 풀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문제를 풀면서 정의, 정리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요령을 익히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미적분학(칼큘러스)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정리, 이중적분, 야코비 변환 등이 있습니다.

• 정수론(학교 교재), 선형대수(안톤), 이산수학(박종안), 확률과 통계

기본서의 다양한 문제, 기출 문제, 강사 문제를 활용하여 충분히 숙달되어야 합니다. 기본서를 반복하여 회독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2) 수교론, 수교재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읽는 것이 지루하면 요약노트 써보기, 소리 내어 읽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적당히 회독하였으면 외워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하여 단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요약노트를 가지고 복습, 암기하면 효율적인 복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전공 공부하다가 졸릴 때, 밖으로 나가 요약노트를 들고 소리 내어 읽으며 공부했습니다.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신은주 기출 풀이집을 추천드립니다.

(3) 교육학

혼자 공부하기 굉장히 지루해서 교육학은 100% 스터디에 의존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풀고 서로의 답안을 피드백해주는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그 결과 19.67점을 받았습니다. 스터디원들 또한 크게 성장하였으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3. 여러 가지 팁

학교 수업에 집중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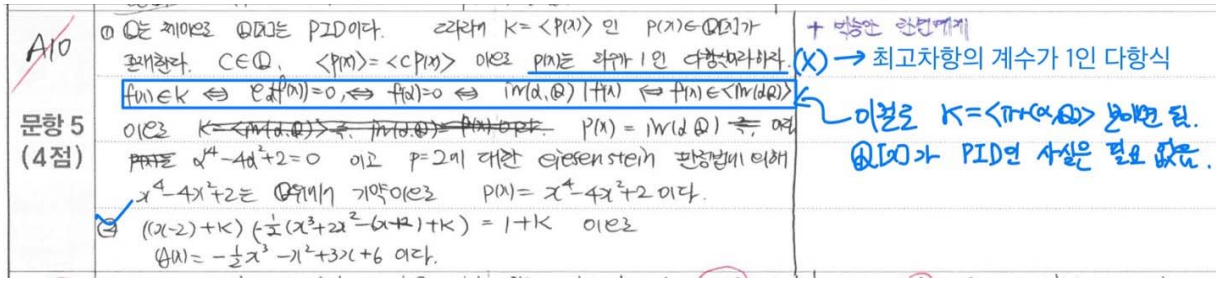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그날 공부한 것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복습하고, 교수님들이 내주신 과제를 푸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던 시간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궁금한 건 바로 바로 질문하시고, 교수님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세요! 소중한 학부 기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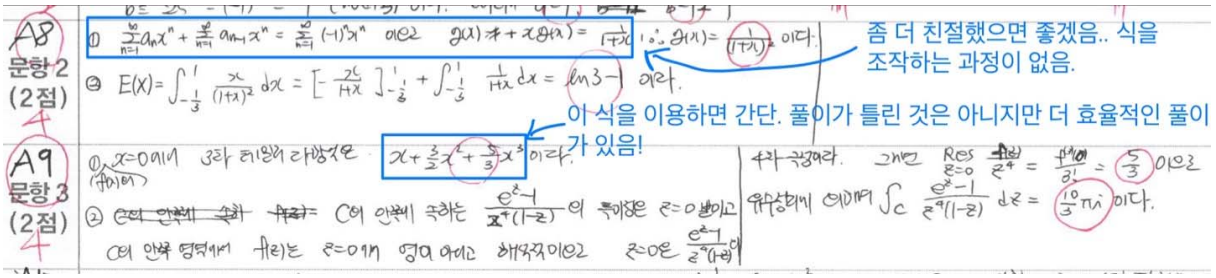
스터디를 활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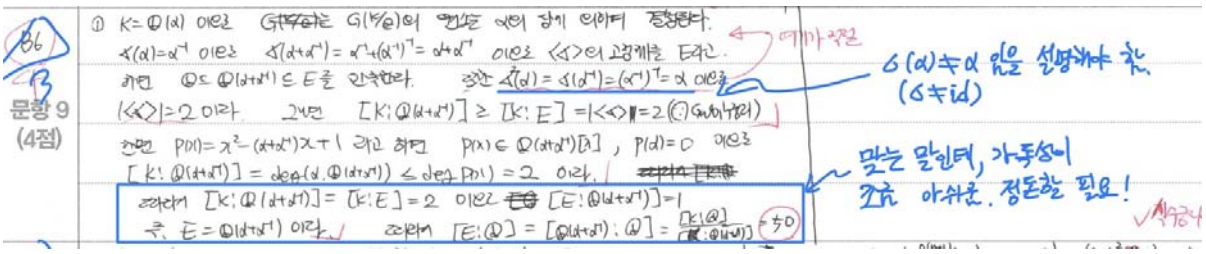
임용 시험은 얼마나 아느냐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서 전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임용 시험의 추세는 문항곤란도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쓰는 능력의 중요도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문제 풀이 스터디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문제 풀이 스터디를 했던 스터디원들 중 4명이 최종합격하였습니다. 전공, 교육학 모두 자신의 풀이를 평가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지 말고, 서로 피드백하여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특히, 합격자 선배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고자 한다면,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기출 문제를 반복해라!

기출 문제는 굉장히 질이 좋고 탐구할 소재들이 많으므로 볼 때마다 얻는 것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의 답을 완벽히 써보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쓰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출 문제도 제대로 못 풀면서 강사 문제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자 선배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기출 문제 풀이를 첨삭&피드백 받아보세요! 다음은 피드백 예시입니다.







마음을 다스려라!

모든 수험생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함이 공부에 악영향을 줍니다. 저 또한 그랬지만, 불안하지 않을 이유를 만들기 위해, 내가 합격할 이유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은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스스로에게 "오늘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임고생이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자신 있게 "없다."라고 답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 불안함을 달랬습니다. 다중지능이론의 가드너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이해능력이 높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특성, 성향에 잘 맞는 공부 방법과 휴식 방법을 선택하여 건강한 수험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4. 마치며...

제가 한 이야기가 누구에겐 적절한 조언이 됐을 수 있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 방법보다는 간절함, 의지, 노력입니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해도 당장 합격한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언젠간 합격할 수 있고, 실제로 제 주변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둘 합격하고 있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성과는 없으니 마음 잡고 정진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랍니다.

기출문제 풀이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아래 블로그로 방문하시면 손풀이가 있습니다.
년주쌤의 수학교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